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선거는 민주정치의 꽃이고 국회는 민주국가의 자랑이다

투표를 통해 퇴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고 국회법을 만들어 대를 물려오면서 선거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을 대면하고 정견을 들어볼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그런 기회가 없이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보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하는 선거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게 하는 것도 정치꾼들의 전략이다.

선거 때마다 명품으로 등장하는 학연, 지연, 혈연과 지역감정을 부추겨, 유권자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이것들이 올바른 선거를 못하게 하는 독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유권자는 사전에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해야 하며 선거 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후보들은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밝혀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고 흠집 내려는 선거 전략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로서 국회의원 수는 300명(지역구 254, 전국 비례대표 46)이며

입기는 4년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민주주의 정치의 선진국인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 수가 100명이고, 임기 2년의 하원수는 435명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대폭으로 줄여야 한다. IMF 때 기업체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수 감축을 했는데 국회의원 수 감축은 없었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원 질이 어떨지 문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 1억 5천7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조원을 주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신분을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표로서 모범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조직이 되어야 하고 의결도 국사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면 안목을 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수당의 횡포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에도 학급회와 어린이회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시도 군 의회가 있다. 국회는 국사를 논의하는 국가 최고 의결기관이고 지성인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이러한 국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사의 중요 사항을 의결할 때는 국회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 부끄러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의 꽃인 선거문화가 선진화되어야 하며 고질적인 학연, 지연, 혈연의 틀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랑스러운 인물을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는 현 21대 국회의원이 과감히 용퇴하게 하고 참실한 새 인물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 유권자는 새 정치 새 국회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출사표를 낸 예비후보는 자기의 투철한 정치적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 해야지 상대 후보를 비방 모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여야 정당은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중이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당의 쇄신이나 통합을 간판만 바꾼 곰탕집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국민 유권자는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투표해 한국에 민주정치 꽃인 선거의 꽃이 피게 해야 하며 민주국가 자랑으로써 제22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정치국의 유권자는 선거에 의해 정당과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새롭게 바꾸는 정치를 한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의 날이다.

선거는 바꾸기 위해 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국민 유권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다.

국민 유권자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치꾼들이 짜서 만든 선거 각본에 말려들어 꼭두각시 배역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첫째가 참신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고 다음이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는 전과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를 운영하며 큰소리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과자는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해야 하며 그런 후보가 등록된 정당과 후보는 국민유권자가

독자기고

###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이 개 현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가구 중 52.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아파트 화재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8천 426건 발생해 사망 110명 등 1천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발화 층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며,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발화 층과 거리가 있을 시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 구조(경량 칸막이)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 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하며, 대피 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시 소파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을 이용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세대 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을 이용해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두 번째 조치 사항을 참고해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피 공간 및 경량 칸막이 부근에는 물건 적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 소화전 사용법 등을 평소 숙지한다면 초기화재 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 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가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 사 장 기백관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